2026년 3월 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중동 지정학적 불안의 대응 매뉴얼

한국 증시는 1) 국내 연휴 기간 중 미국 증시 변화, 2)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전쟁 확대 여부, 3)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 비농업 고용 등 주요 지표, 4) 브로드컴 실적, 5)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전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850~6,350pt).

28일 주말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도 관련 뉴스플로우 확산으로 사태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실정. 향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심화 시, 22년 러-우사태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다만, 과거 1~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초기에 하락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 과거 학습 효과에 더해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국내 정부는 100조원 유동성 지원),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방산주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도 대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27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대외 변동성 요인에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KOSPI +7.5%, KOSDAQ +3.36%)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 주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에 힘입어 2% 급등세 연출.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 인상 불확실성 잔존한다는 인식과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되며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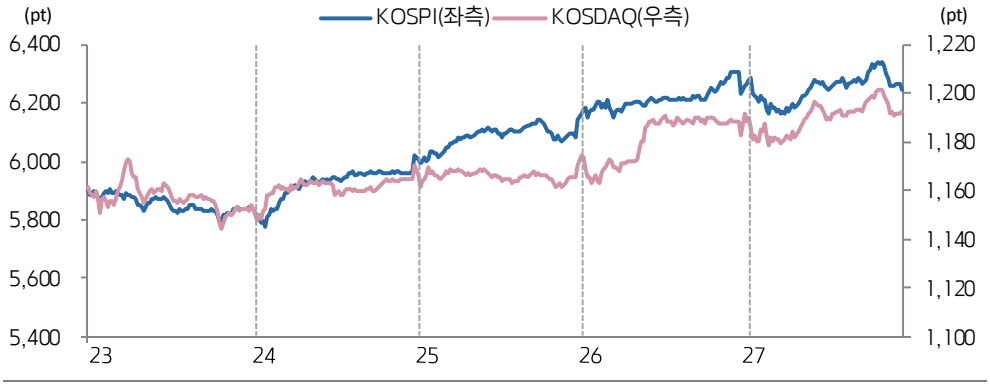
지난주 최대 이벤트였던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매출액, EPS 시장 예상치 상회,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액 전년대비 75% 성장, GPM 75.2% 유지)했고, 올해 1분기 매출액(780억 달러) 및 GPM(70%대 중반대 지속)도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나, 뉴스 이후 차익실현 심리, AI 산업 버블 우려 지속 등으로 본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하락.

다만,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익 모멘텀, 풍부한 증시 유동성 여건 등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보유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증시 대비 아웃퍼폼 흐름이 지속되었음. 미 증시에서 AI 버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를 지탱하며 코스피는 6,000pt선을 돌파.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심으로 자금 쏠림 재차 진행되며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 한편, 지난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며 일부 급등하였던 증권, 보험 등 정책 수혜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다만, 정부는 이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후속적인 정책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남기며, 국내 고유의 정책 모멘텀 동력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

업종별로 건설(+14.2%), 전기/전자(+12.49%), 운송장비/부품(+11.12%), 제조(+10.68%), 금속(+10.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6.83%), 보험(-4.53000001%), 통신(-4.53%), 음식료/담배(-3.56%), 증권(-3.4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466억원)은 운송장비/부품(+8,558억원), 화학(+7,334억원), 기계/장비(+3,948억원), 제약(+2,707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2,901억원)은 제조(+50,161억원), 전기/전자(+37,919억원), 기계/장비(+6,664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3 월 2 일	월	미국	S&P 제조업 PMI (최종치)	2 월	-	51.2
		휴장	**한국 (삼일절 대체공휴일)**			
3 월 3 일	화	미국	**ISM 제조업 PMI**	2 월	51.6	52.6
		한국	S&P 제조업 PMI	2 월	-	51.2
		EU	CPI (YoY, 잠정치)	2 월	-	1.7%
		발언	**뉴욕 연은총재**			
3 월 4 일	수	한국	산업생산 (MoM)	1 월	-	1.7%
			소매판매 (MoM)	1 월	-	0.9%
		중국	제조업 PMI	2 월	49.1	49.3
			서비스업 PMI	2 월	49.6	49.4
			레이팅독 제조업 PMI	2 월	50.1	50.3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2 월	-	52.3
		EU	PPI (YoY)	1 월	-	-2.1%
		미국	ADP 취업자 변동수	2 월	42k	22k
			S&P 서비스업 PMI (최종치)	2 월	-	52.3
		행사	**중국 양회 개막(~5 일)**			
		발언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			
3 월 5 일	목	미국	**ISM 서비스업 PMI**	2 월	53.8	53.8
		공개	**연준 베이지북(오전 4 시)**			
		실적	**브로드컴**			
3 월 6 일	금	한국	CPI (YoY)	2 월	2.2%	2.0%
			경상수지	1 월	-	$18702.6m
		EU	GDP 성장률 (QoQ, 최종치)	4 분기	-	0.3%(0.3%)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MoM)**	1 월	0.3%	0.4%
			실업률	1 월	4.4%	4.3%
			비농업고용자수	1 월	60k	130k
		실적	**코스트코**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국내 연휴 기간 중 미국 증시 변화, 2)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전쟁 확대 여부, 3)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 비농업 고용 등 주요 지표, 4) 브로드컴 실적, 5)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전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850~6,400pt).

국내 휴장 기간(27일~2일, 2거래일) 중 미국 증시는 AI 산업의 수익성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2월 PPI 컨센 상회, ISM 제조업 PMI 내 가격 지수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2거래일 누적 등락률, 다우 -1.2%, S&P500 -0.4%, 나스닥 -1.7%).

28일 주말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도 관련 뉴스플로우 확산으로 사태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실정. 또 1월 베네수엘라 공습과 달리 수 시간 만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트럼프도 3~4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

아직 공식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으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선박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의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전세계 원유 생산 차질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 여파로 WTI는 하루만에 7%대 내외 급등세를 보이면서 70달러대 초반 수준에 도달(연초 50달러 후반). 향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심화 시, 22년 러-우사태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다만, 2일 유가 급등한 것에 비해, 미국 S&P500과 나스닥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2일 S&P500 +0.04%, 나스닥 +0.4%, 다우 -0.2%)더 나아가, 과거 1~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초기에 하락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과거 학습 효과에 더해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국내 정부는 100조원 유동성 지원),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 주식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방산주들에게 신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주중 방산주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도 대안.

이처럼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의 중심을 장악했음에도, 주 후반에 예정된 2월 비농업 고용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 지난 1월 고용이 표면상 서프라이즈(신규고용 13만건 vs 컨센 5만건)를 기록했음에도, 시장은 "Good news is bad news(지표가 좋으니 연준은 금리인하 안할 것이다)"로 반응하지 않았던 상황. 1월 증가세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민간 고용 감소를 고려 시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 따라서, 이번 2월 신규고용(컨센 6.0만 vs 전월 13.0만), 실업률(컨센 4.4% vs 실업률 4.3%) 결과를 확인하면서, 2월 중 유보해 놓았던 연준의 정책 방향성 베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주식시장에서는 AI주 향방이 중요하므로, 브로드컴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여전히 미국 AI주들이 수익성 불안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취약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는 실정.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주가 하방 압력을 맞은 것도 같은 맥락.

브로드컴 역시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AI 칩 매출 증가로 인해 4분기 매출총이익률이 약 100bp 정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월말 현재까지도 이들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이번 브로드컴 실적에서는 수익성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는지가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브로드컴 포함 AI 주 전반에 걸친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고 판단.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전이 관전 포인트. 지난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순매도로 일관했으며, 개인은 현물, ETF(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섰던 상황(2월 월간 외국인 21조 원 순매도, 개인 4조 원 순매수 + 금융투자 16조 원 순매수). 더욱이, 28일에는 외국인이 7.0조 원 순매도하면서 2000년 이후 일간 최대 순매도 금액을 경신한 반면, 개인도 이날 6.2조 원 순매수하면서, 26년 2월 5일(+6.8조원) 다음으로 일간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는 현상이 출현.

물론 2월 코스피가 19.5% 상승하며 6,200pt대에 진입하는 등 결과만 놓고 보면, 개인의 순매수 전략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번 주도 FOMO 성격이 가미된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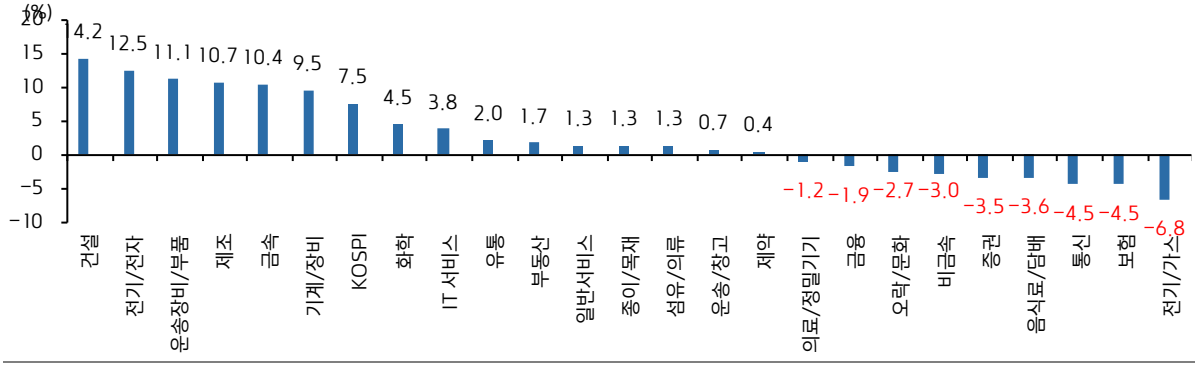
다만, 현재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과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중동 사태), AI(브로드컴 실적), 매크로(고용 경계심리) 등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이를 감안 시, 주중 코스피는 개인의 대규모 수급이 지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겠으나, 장중 변동성은 빈번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놓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244.13	-1.0	7.5	22.8	48.2
대형주	6,659.53	-1.0	8.3	23.9	52.1
중형주	4,672.05	-0.8	1.1	14.9	25.5
소형주	2,904.17	-0.4	-0.1	11.7	15.4
코스피 200	933.34	-1.1	8.6	25.3	54.0
코스닥	1,192.78	0.4	3.4	10.2	28.9
대형주	3,083.99	1.2	4.7	12.1	37.0
중형주	1,151.97	-0.4	2.9	11.0	28.0
소형주	2,969.59	-1.1	0.4	5.9	15.4
코스닥 150	2,116.60	1.1	4.5	11.9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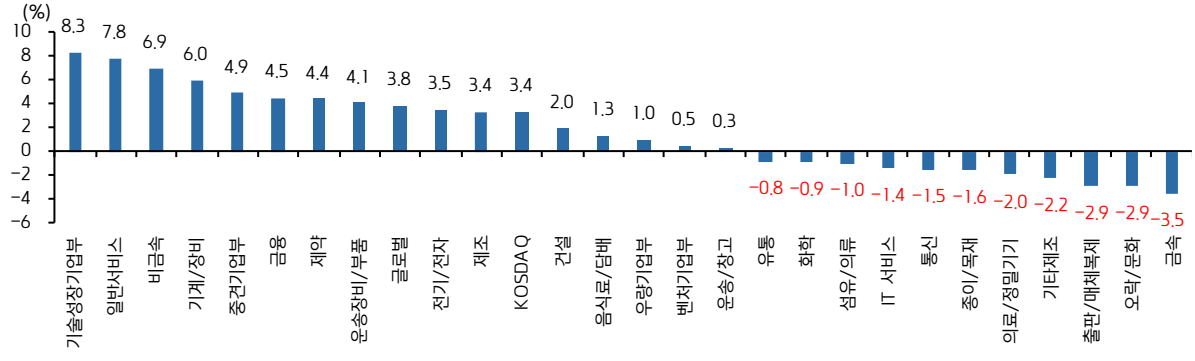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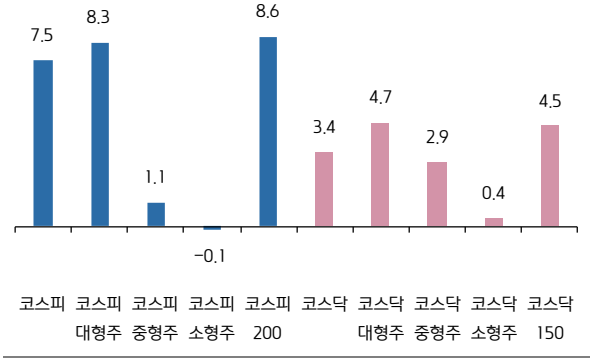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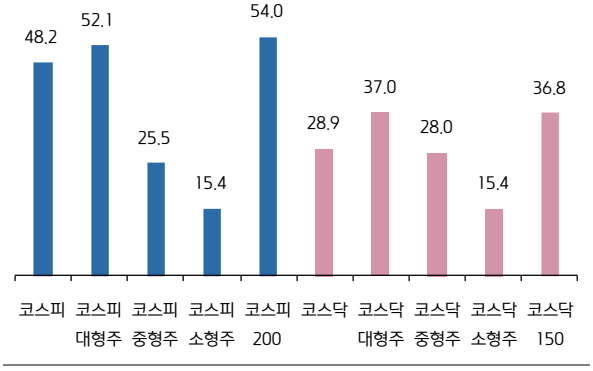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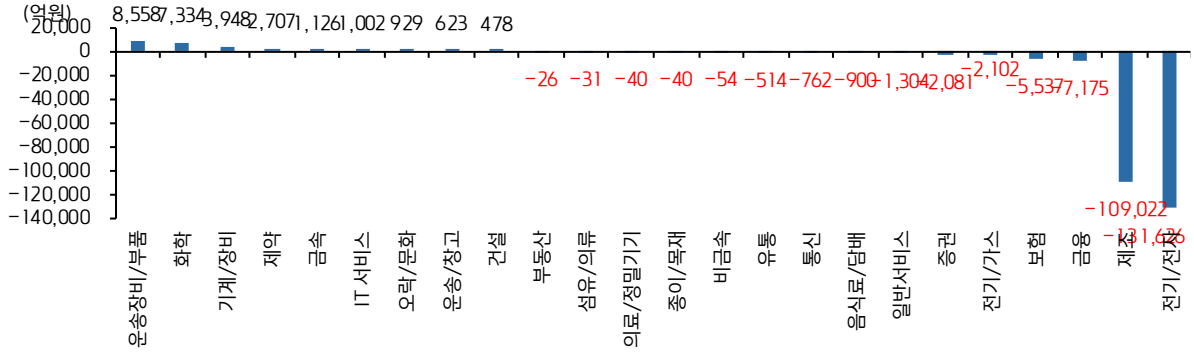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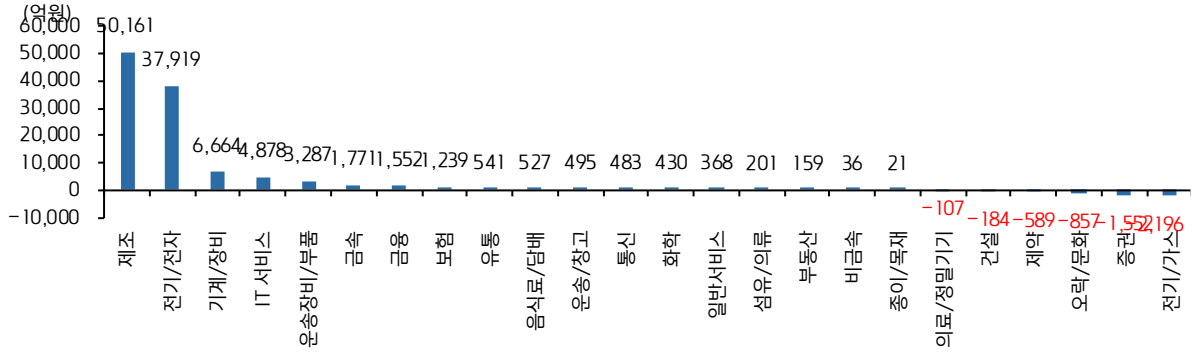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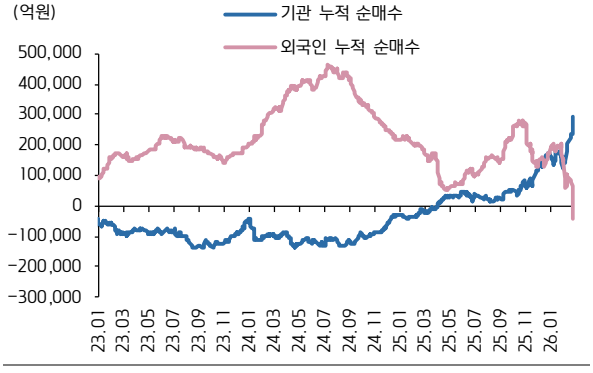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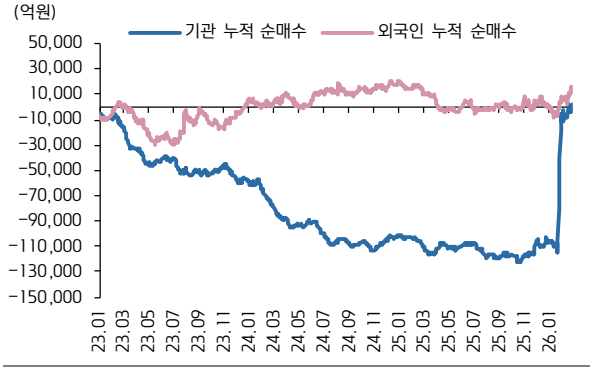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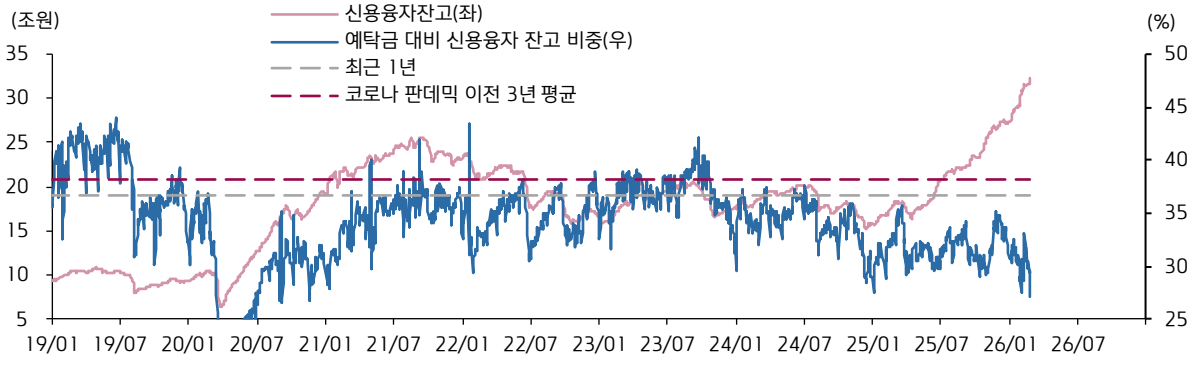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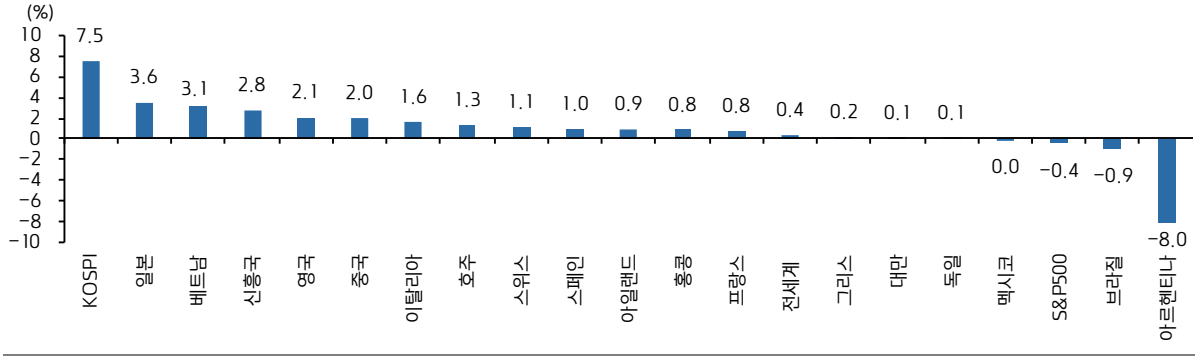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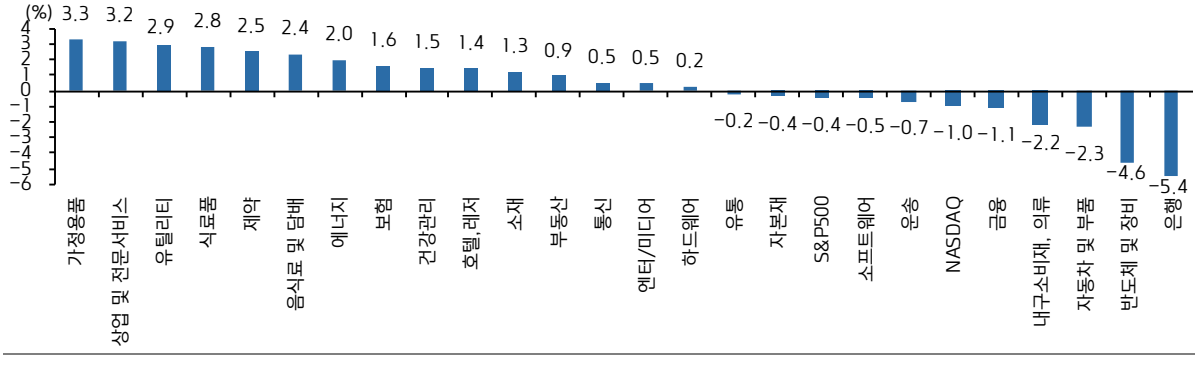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